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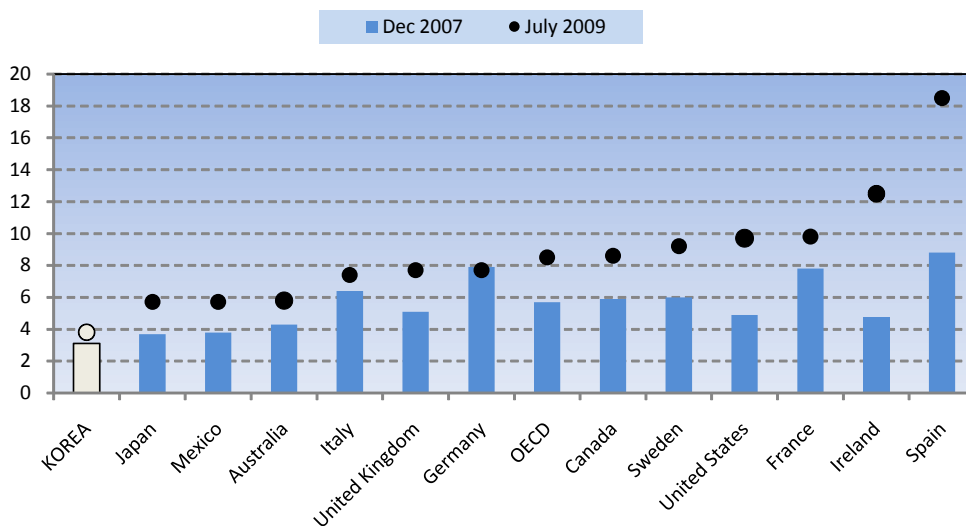


2009 고용전망보고서(Employment Outlook 2009) –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계절조정 실업률은 2009년 6월에 4%에 이룸으로써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7월 실업률이 그 보다 낮은 3.8%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추정 가능하다. 6월 실업률은 최근 최저치를 기록했던 2008년 9월 대비 1% 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OECD 평균 실업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전 세계적인 경제하강 국면에서, 특히 아일랜드, 스페인, 미국 등의 실업률이 대한민국에 비해 급등한 것에서도 부분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그림 1). 산업별로 보면, 대한민국의 경우도 여타 OECD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제조 및 건설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주요국의 2007년 12월 및 2009년 7월 실업률

노동력 대비



주: 이태리는 2009년 3월, 영국은 2009년 5월, 캐나다 및 미국은 2009년 8월이 최종월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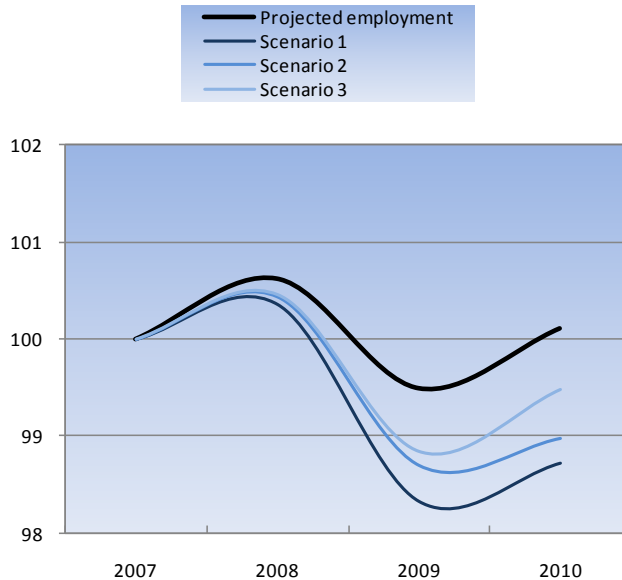
자료: OECD.

대한민국의 경기부양 패키지 규모는 2008년 GDP의 6.1%에 달하여 OECD 회원국 중 최대 수준이며, 동 부양책은 실업을 최소화 함에 있어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2009년 OECD 고용전망보고서는 이 같은 재량적 경기부양 패키지가 없었을 경우와 대비할 때, 2010년도의 대한민국 고용은, 148,000 개 내지 326,000 개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그림 2). 대한민국의 개방형 경제 특성 - 부양책에 따라 잠재적으로 가능한 고용 효과(impact)의 일부는 그것이 국내 생산(수요) 진작에 기여하기 보다는 수입 증가로 귀결되는 점 - 이 아니라면, 동 경기부양 패키지의 고용창출 효과는 보다 클 것이다.



대한민국 경기부양책의 일자리 효과

전체 고용 변화 전망 (2007=100)



주: 고용전망은 OECD의 최근 전망치를 활용함. 제시된 시나리오는 대한민국의 재정투입 패키지 규모 및 동 부양책이 없는 상황과 비교한 재정 패키지의 고용 영향에 대한 상이한 가정에 따른 것임. 시나리오 1은 문헌연구에 따른 평균 GDP 승수를 적용한 것으로, 지출 및 조세 항목에 대한 조율되고 보다 상세한 분류체제에의 적용을 위해, 그리고 개방경제에서는 그 크기가 보다 작고, 패쇄형 경제에서는 보다 큰, 승수의 경향을 고려한 것임. 시나리오 2는 검토된 거시모델이 정부 추가지출의 일정 부분은 국내 생산 재화 및 서비스 보다는 수입에 사용되는 사실을 충분히 감안치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동 GDP 승수를 절하한 것임. 시나리오 3은 현 위기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저축성향에 따라 재정승수가 평상시 보다 낮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2차적인 하향 조정을 추가한 것임.

대부분의 OECD 회원국과는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임금조정이 고용 손실을 줄이는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2월 23일 체결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는 사회적 당사자 간 임금양보에 대한 보상으로로서의 고용보장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주로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국한된 점은 있으나, 동 합의 이후 2009년 3월말까지 422건의 상호양보, 협력 협약이 체결되었다.

청년층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이들을 제외한 15-29세 연령층의 실업률은 2009년 7월에 전년 동월의 7.4%와 비교하여 지난 1년간 8.5%로 증가하였다. 15-19세 연령층의 실업률 증가는 보다 심각하여, 같은 기간 동안 12.5%에서 15.8%로 증가하였다. 이 같은 문제를 감안, 대한민국 정부는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재도입하여 현재까지 약 10만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 경험과 경력개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현 위기 상황에서 청년실업 문제 완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동 프로그램은 커다란 사중손실 효과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는 만큼, 노동시장 상황이 회복될 경우 그 규모가 축소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강화되어 온 사회안전망에 따라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장이 개선되어 왔으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현 위기 상황에서 실업자에 대한 재고용 지원 강화에 보다 주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타 OECD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실업자들의 고용 및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일련의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 그 하나의 예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최장 1년간의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이 2009 년 도입되어 그 첫해에 15,000 명을 목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2,010 년도에는 25,000 명을 대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는 위기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장기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락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및 여타 회원국에서 취하고 있는 역동적인 정책을 환영한다.

OECD 2009 고용전망보고서는 비밀번호가 필요한 website 에 접속하시거나 OECD 홍보과에 요구하실 경우 기자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추가 코멘트를 원하시는 기자분들은 OECD 고용분석정책과의 Stefano Scarpetta (tel: +33 1 45 24 19 88 or e-mail: stefano.scarpetta@oecd.org) 또는 Hyoung-Woo Chung (tel: +33 1 45 24 92 79 e-mail: hyoung-woo.chung@oecd.org)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